



# 참화와 비극의 정치사

## 책으로 보는 전쟁의 역사

김홍철 · 전 한양대 정치과 교수

*세계정치사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사의 연속이고, 반대로 전쟁사는 무서운 파괴와 인간의 살육을 동반하는 참화와 비극의 정치사의 연속일 뿐이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 새겨진 무수한 전쟁의 역사기록은 새로운 국제평화 질서를 창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교섭활동 기록과 협정·조약문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전쟁은 평화를 생산하고 일정기간의 평화상태는 그 속에 또 다른 미래의 전쟁상태를 잉태한다.*

전쟁의 역사는 인류문명사, 세계정치사에 기복과 변혁을 가져온 결정적인 원동력이다. 이 때문에 세계정치사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사의 연속이고, 반대로 전쟁사는 무서운 파괴와 인간의 살육을 동반하는 참화와 비극의 정치사의 연속일 뿐이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 새겨진 무수한 전쟁의 역사기록은 새로운 국제평화 질서를 창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교섭활동 기록과 협정·조약문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전쟁은 평화를 생산하고 일정기간의 평화상태는 그 속에 또 다른 미래의 전쟁상태를 잉태한다.

따라서 전쟁의 역사는 세계의 정치사요 동시에 외교사·조약사이고, 전쟁의 역사 속에는 평화사상가들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여 있다. 전쟁과 평화, 정치와 전쟁, 그리고 전쟁·군사·외교 등의 상호 연관관계를 일상의 생활감각으로 접근한 참고서로는 필자의 《전쟁론》(민음사)과 퀸시 라이트의 《전쟁연구》, P.A. 소로킨의 《사회·문화동학》, D.W. 지글러의 《전쟁, 평화, 그리고 국제정치》 등을 들 수 있다.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인류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쟁을 체험해왔다. 최근 제라르 살리아이 펴낸 《세계전쟁사론 선집》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현대의 핵무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역사를 문명권별·세기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방대한 전쟁의 역사기록을 간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으로는 조지 C. 콘의 《전쟁사 사전》 등이 있다. E. 러트윅의 《현대전쟁 용어사전》은 현대의 전쟁, 군사용어 등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대표적인 국제전쟁으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혈투였던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25~401)을 꼽는다. 이 시대의 전쟁은 로마제국의 평화(Pax Romana)와 식민지 제국의 건설을

위해 사상무장된 강대한 ‘로마군단’을 앞세워 많은 도시국가를 로마의 식민국가로 편입시켜나가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로마제국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건설됐다고 말할 수 있다. 로마의 전략가였던 베게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명언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약에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구가 그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당대의 대표적인 전쟁사 기록이다. 그리고 베게티우스의 《로마의 군사제도》는 로마시대의 전쟁과 군사제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서다. 최근 앤더슨이 펴낸 《크세노폰 시대의 군사이론과 실제》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함께 참고할 만한 책이다.

유럽 중세에 일어난 ‘십자군전쟁’과 ‘백년전쟁’은 유럽사의 흐름과 변혁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전쟁이다. 십자군 운동과 그 전쟁(1097~1291)은 11세기경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전쟁이었다. 바꿔 말하면 십자군전쟁은 기독교 문명권의 총체적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 치러졌다. 이 때문에 이 전쟁은 ‘기독교 사회의 평화’(Pax Christiana)를 전쟁의 지상명분으로 삼았다.

모든 전쟁에는 먼저 ‘적대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십자군전쟁 당시 기독교 문명권의 상대적(相對敵)은 이교도인 이슬람문명권의 무슬림 세계였다. 이 때문에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십자군전쟁을 자신들의 ‘성전’이라고 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십자군전쟁에 대해 싸우는 전쟁을 ‘성전’(지하드)으로 삼고 전쟁에 임했다. 이 같은 ‘성전’과 ‘지하드’와의 대결질서 속에서 전쟁은 곧 이질

적 문명권간의 충돌전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앙리 피렌느의 《유럽사》는 십자군전쟁의 총체적 실상과약에 도움이 된다. 또한 R.C. 스마일의 《십자군전쟁과 전략전술》은 십자군전쟁 당사자의 전략전술 및 군사조직

에 관한 군사지식을 소상하게 다룬다. 다음 폴 앨펀더리의 《기독교사회와 십자군전쟁사상》은 기독교 문명권에서 차지했던 십자군전쟁의 역사적 중요성과 비중을 깊이 있게 조명해준 역저다.

### 패권전쟁으로서의 백년전쟁

한편 ‘백년전쟁’(1337~1457)은 근 100년 동안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가 패권경쟁을 벌인 혈투사다. 프랑스의 운명을 구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잔다르크의 활동시기도 이 백년동안이었다. 십자군전쟁이 기독교권과 이슬람권간의 문명충돌적 전쟁이었다면, 백년전쟁은 유럽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패권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패권쟁취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세계정치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백년전쟁은 봉건국가 질서였던 중세사회의 총체적 몰락을 촉진시킨 결정적 동인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군용할거의 지방분권적 봉건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중앙집권적인 근대적 절대군주국가 시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군사사 및 무기변천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백년전쟁은 실로 전쟁·군사사 기록의 혁명적 전환기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곧 총포화약무기의 등장과 전장에서 사용의 의미를 의미했다. 총포무기의 등장과 사용은 중세사회의 강력한 귀족적 지배계층으로서의 핵심역할을 했던 기사계층의 실직과 몰락을 촉진해주었기 때문

이다. 당대의 지배계층이 몰락한다는 것은 곧 중세와 같은 시대질서의 총체적 붕괴와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백년전쟁을 체험한 이후의 유럽사회는 중세의 암흑시대를 벗어나 근대 절대주의 국가의 출현을 재촉하는 변혁과정을 걷게 된 것이었다.

군사국가로서의 근대국가는 왕가 중심의 절대주의적 군주국가 시대다. 이 때문에 ‘군왕의 평화’를 위해 전쟁하는 것을 지상지고의 전쟁명분으로 삼았다. 따라서 모든 절대군주들은 패권군주가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부국강병책을 표방해 국가경영의 실천강령으로 삼으면서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전쟁청부업자인 용병대를 고용해 전쟁실력을 보전하고, 상비군 제도를 도입해 군비경쟁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의 전쟁은 대부분 왕권계승전쟁이었다. ‘30년 전쟁’(1618~1648)은 절대군주 체제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국제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으로 종결됐다. 이후의 수많은 왕권계승전쟁은 되풀이 되면서 프랑스의 ‘혁명전쟁’(1792~1802)까지 이어졌다.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14)은 ‘유트레히트 평화조약’(1713)으로 마무리됐다. ‘폴란드 왕위계승전쟁’(1733~1738)은 ‘비엔나 평화조약’(1738)에 의해,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1748)은 ‘엑스라사펠 조약’(1748)으로 종결됐다. ‘칠년전쟁’(1756~1763)은 1763년의 ‘파리 평화조약’으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프랑스혁명’(1789)과 나폴레옹 등장으로 전개된 ‘프랑스 혁명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19세기 이후의 새로운 시대질서인 ‘국민국가’ 체제가 창출됐다.

### 국민전과 총력전

19세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국민들은 몇가지의 상이한 전쟁유형을 체험했다. 첫째, 19세기부터 시작된 국민국가 체제하

# 역사 속을 배회하는 전쟁영웅

나폴레옹 · 칭기즈칸 · 히틀러 등

지난 3천년 동안 인류가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68년, 이 때문에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기록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던 전쟁영웅들에게는 전쟁에 대해서만큼이나 복잡한 평가가 내려진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전쟁광이라거나 자기 시대의 요청을 구현한 영웅 등으로 엇갈린다. 평가야 어떻든 분명한 것은 책이 소재로 삼고 싶어할 만큼 그들의 삶이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는 사실이다.

## 굴곡 많은 삶의 나폴레옹

전쟁 영웅을 다룬 책은 아무래도 자료가 부족한 고대보다 근대 이후에 많이 치중해 있는 편이다. 이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이는 단연 나폴레옹이다. 전기, 소설 등 전세계적으로 8



왼쪽부터 나폴레옹 · 칭기즈칸 · 히틀러.

만종의 책이 나와 있고, 국내에도 여러 편이 소개됐다. 나폴레옹은 말 그대로 '전쟁' 영웅이다. 그는 '유럽의 군주'가 되기까지 전유럽을 발 아래 놓았던 수많은 승전과 패전,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쟁까지 고대의 한니발 · 알렉산더 · 카이사르가 벌였던 전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쟁을 치렀다.

막스 갈로의 《나폴레옹》(전5권, 문학동네)은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폴레옹의 삶을 정밀하게 복원한 책으로 유명하다. 같은 시기에 출간된 장 폴 카우프만의 《나폴레옹》(세계사)은 세인트 헬레나섬에서 보냈던 마지막 시간을 반추한다. 그 시간은 "참담한 패배 한편의 그 혁혁했던 무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시기였다.

책이 특별히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이유는 굴곡많은 삶 때문이다. 그는 25세에 유명해지고, 40세에 모든 것을 소유했고, 50세에 이르러 이름 외에 남은 게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군주로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나폴레옹의 전쟁금언》(책세상)이다. "전쟁은 정치와 지략 등 모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던 전쟁영웅들에게는 전쟁에 대해서만큼이나 복잡한 평가가 내려진다. 역사 속 초대형 영웅을 현실로 불러내는 대중심리는 현실의 불만을 전쟁이라는 폭발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소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 속의 영웅들은 지금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와 삶의 처세, 경영 노하우를 담은 친절한 개인교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자 악한 등으로 인식돼 있지만 히틀러를 다룬 책은 그가 5백만 실업자의 독일사회가 요청한 인물이며 합리적인 계산과 대중심리에 대한 통찰이 뛰어난 카리스마의 지도자로 평가한다.

## 20세기 문제적 인물, 히틀러

요아힘 C. 페스트가 쓴 《히틀러 평전》(푸른숲)은 자서전 《나의 투쟁》이 과대망상과 비극적 어조로 자신을 포장한 데 비해 균형있는 시각을 보여준다. 히틀러에 관한 책 가운데는 소설이나 평전 외에 《히틀러의

정신분석》(윌터 C. 랑거, 숲)이라는 독특한 주제의 책도 있다. 히틀러가 죽기 2~3년전 미국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인 셈인데, 히틀러의 모습을 자신의 입장, 주위 사람들의 시각 등 여러 각도로 살핀다.

이미 죽었지만 히틀러는 극단적 민족주의인 나치즘의 이름으로 지금도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

역사 속의 초대형 영웅을 현실로 불러내는 대중의 심리는 현실의 불만을 전쟁이라는 폭발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소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쟁영웅을 다룬 책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그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영웅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역설적이게도 《칭기즈칸 경영전략》이나 《나폴레옹에게서 배우는 마케팅 전략》 등 바로 개인의 인생운용을 위한 지혜나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단편적인 처세 · 실용서 속의 친절한 개인교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현주)

든 것을 포함한 예술"이라는 신념에 따라 직접 수행한 전투뿐 아니라 17·8세기의 전쟁까지 분석해 전략과 전술에 대해, 항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밝혀놓고 있다.

서양에 나폴레옹이 있다면 동양에는 칭기즈칸이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꼽은 칭기즈칸은 특히 동양인이 사랑한 인물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그의 삶은 이재운이 쓴 《천년영웅 칭기즈칸》(해냄)에서 대하처럼 펼쳐진다. 같은 동양권인 중국 장평홍의 《칭기즈칸》(중앙M&B)과 진순신의 《칭기즈칸 일족》(한국경제신문사)도 세계를 지배한 동양의 영웅으로 칭기즈칸을 신화화한다. 이에 반해 서구인이 쓴 한길로로 시리즈의 《칭기즈칸》(라인홀트 노이만)에서는 칭기즈칸이 정복군주이기도 하지만 성업 중이던 동서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려 했던 무역군주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아직도 평가가 진행 중인 히틀러는 20세기의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 꼽힌다. 2차 대전을 일으킨 광기어린 인물, 희대의 살인자

의 '국민전'과 '총력전' 양식의 전쟁이다. 둘째, 양차 세계대전 유형의 전쟁이었다.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겪게 된 '핵전쟁 시대'와 '냉전체제'다. 특히 전후의 세계정치질서 하에서는 이른바 '이데올로기 전쟁' 내지는 '정치적 전쟁' 유형도 함께 체험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이 싹트던 국민전 시대에는 군사사적 의미의 동원혁명이 도래했고 전쟁은 물량우선주의의 '총력전' 시대로 바뀌게 됐으며, 전쟁의 규모는 세계적 범위로 확대돼나갔다. 금세기에 두번이나 겪게 된 양차 세계대전은 열강들의 경쟁적인 제국주의 정책질서와 세계적 영토분할, 그리고 패권주의적 식민지 제국건설을 위해 전념하는 현대사를 만들어냈다. 그 대가는 전체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참화와 비극을 안겨주고 끝을 맺었을 뿐이다.

따라서 전후시대는 핵무기시대로 진입하면서 제2의 무기혁명을 맞게 됐다.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이데올로기 전쟁을 치르게 됐으며, 핵 · 통상 군비경쟁은 어떤 시대보다도 그 강도를 심화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 결과는 전체 인류를 순식간에 총체적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그리하여 전쟁의 고유논리를 제한하고,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세계평화질서를 갈망하고 꿈꾸며 세계국민들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